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9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17 1982년 9월 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September 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전대통령 캐나다떠나 혈맹의 우의 다지며

공동성명·기자회견은 없이

피로의 기색, 유병현 주미대사 동승

(오타와=특별취재반)3박4일의 캐나다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전두환대통령 일행은 슈리이어총독 내외와 오타와 교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31일 상오11시10분 오타와를 떠났다.

이날 공항에는 이규현 주 캐나다대사와 슈리이어 총독, 바우어 주한캐나다 대사등이 비행기트랩 앞까지 나가 작별을 했다. 이날 대통령 일행을 태운 차행렬은 캐나다 군기지 터미날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오타와 교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기지안으로 직행했다. 긴 여정에서 오는 피로가 역력한 대통령 내외는 이대사및 대사관 직원, 수명의 교민대표, 캐나다 관리들과 악수를 나눈후 트랩에 올랐으며,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한번 손을 크게 흔들었다.

이어 180여명의 공식·비공식 수행원들이 탑승을 끝내자 태극마크가 빛나는 대한항공 소속 보잉747 점보기는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단숨에 할려 푸른 하늘로 치솟았다. 유병현 주미대사는 중간 기착지인 알라스카 앵커리지까지 동승했다.

하이드로 인상 가정용 8～13%

메트로지역 가정용 하이드로요금이 내년에 8～13% 인상될 전망이다.

31일 온타리오에너지성은 온타리오·하이드로회사에 8%만 인상할 것을 권장했으나, 하이드로회사측은 13%로 인상을 원하고 있다.

현재 20.50달러인 월평균 가정용 하이드로요금이 정확히 얼마나 오를지는 11월 말경에나 확실시 될 것 같다.

인상폭은 12월1일까지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오타와공항을 떠나기 직전 대통령 부부가 캐나다를 대표해서 환송나온 슈라이어총독 부부와 작별하고 있다.

건축붐 이는 토론토

이글튼시장, "캘거리 부럽잖다"

붐타운·캘거리에 못지않은 건축붐이 토론토에서 일고 있다.

경제전망의 불투명과 전반적인 침체에 불구, 토론토는 82년 1년간 5억달러 이상의 건설계획이 추진중으로 이는 연간계획으로 토론토시 사상 최대의 기록이다.

아트·이글턴 토론토 시장은 최근 "제2의 이튼·센터 건축, 노바·스코시아 은행 재개발계획및 북미 최대의 단일공사로 꼽힐 철로부지 건설등 굵직한 공사들이 추진중에 있다. 토론토는 항상 캐나다의 경제중심지였고, 현재도 그렇다. 건설허가 규모로는 토론토를 능가하는 캘거리는 기대가 실적보다 더 큰 듯하다. 토론토는 역시 캐나다의 중추적, 세계적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글턴 시장의 말대로 토론토시의 여기저기서 건축붐이 일고 있음을 쉽게 눈에 띈다.

토론토시 건축행정관 마이클·닉슨씨가 밝힌 토론토건설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토시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이외에 연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두가의 옛「터미날 웨어하우스」신축개조 공사까지 합치면, 토론토·붐이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연방정부는 이 지역을 96에이커 공원에다 민간건축업자들이 주택을 짓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많은 건축계획중에 서민을 위한 저임대아파트를 위한 것은 거의 없어 시당국은 시영주택공사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외에 아파트 지하실및 독채집 2·3층 임대를 법적으로 허용케 되길 바란다"고 이글턴시장은 밝히고, 다같은 붐이지만 토론토·붐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붐으로 시와 시민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계획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선·라이프 보험회사가 유니버시티와 킹에 건설중인 새 사무실 건물.

IMF 대표 토론토향발

강경식 재무등 15명

(서울1일=연합)강경식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한국대표단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토론토에서 146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제37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

강장관은 7일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들에게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완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 한국대표단은 IMF·IBRD회의에 참석한 뒤, 10일 미국으로 건너가 15일까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등 주요도시를 순방하면서 은행관계자및 기업인들과 만나 미국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대통령일행 서울 안착

15일간 5개국 순방 무사히 마쳐

(서울1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15일간의 캐나다-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1일 하오 서울에 도착했다.

전대통령은 김포공항 도착 성명에서 "한국은 이번 아프리카·캐나다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 유대에 새 장을 열었다. 특히 아프리카국가들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아프리카가 필요함을 더욱 느꼈다"면서 "캐나다 방문으로 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됐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한국·캐나다 관계는 같은 태평양연안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정치에서 긴밀한 공동보조를 취할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대통령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한국은 기술과 자본등으로 지원할 것이며,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자원개발을 도와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통령의 순방에는 영부인 이순자여사를 비롯, 18명의 정부관리들이 공식수행 했고, 이밖에 많은 경제계 재벌급 인사들, 경호원들이 동행했다.

한국산 승용차 수출가 급등

(서울1일=연합)일부 한국산 승용차의 수출가격이 금년들어 크게 오른것으로 알려졌다.

1일 상공부 소식통에 의하며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포니」승용차의 수출가격은·지난7월말 현재 $2천850으로, 이는 1년전에 비해 대당 $200가 증가한 숫자이며, 새한자동차의 「로얄·레코드」의 수출가격은 $6천600으로 1년전의 $3천640에 비해 무려 $2천940이나 폭등했다.

이와같은 수출가 인상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기술개발이 크게 향상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 소식통은 풀이했다.

한편 한국의 금년 첫7개월간의 자동차 수출실적을 보면 「포니」의 경우는 7천38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대의 증가를 보였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감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기는 무엇인가?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점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김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BLOOR ST. W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
오이소백이 ●큰 병 $6.99 ~~$9.50~~
●작은병 $4.50 ~~$6.90~~

	SPEC	REG.
♣ 북어포	1.25	~~1.55~~
♣ 마른미역	1.99	~~2.50~~
♣ 물미역	.99	~~1.29~~
♣ 소 면	.89	~~.99~~
♣ 냉 면	.99	~~1.29~~
♣ 도라지	2.49	~~2.95~~
♣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신품 대한 쌀 가주미 장미표 국보 경기미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1면에서 계속〉

크게 탈바꿈할 토론토 도심
금년 공사규모 4억달러

▲우선 프론트·스트릿 남쪽과, 영과 베서스트를 잇는 지역에 5만채의 주택이 들어 서고, 그렇게 되면 이곳은 토론토의 새로운 금융중심가로 등장하게 될 것 같다. 현재 이곳의 철로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프론트·스트릿의 1억3천만달러짜리 컨벤션 센터 건축안이 이미 최종승인 단계에 있다.

▲베이와 윌튼·스타릿 코너에 있는 The Old Elgin Ford 중고 자동차 딜러 자리에 3천5백만달러 건물이 들어선다. 트라이멜회사가 지을 새 건물에는 223개의 호화판 컨도미늄과 1층에는 상가가 형성된다.

▲대건축회사인 캐딜락·페어뷰는 곧 포리스트·힐 지역 심장부인 옛 세인트·마이클즈학교 부지에 2천7백만달러 규모의 콘도미늄을 짓는다. 그 옆으로는 195채의 고급주택도 새로 들어선다.

▲자비스·스트릿과 블루어에 본부 건물을 가진 매뉴라이프 보험회사는 현재의 건물꼭대기에 2천3백만달러를 들여 추가 신축한다. 새 건물은 정면 전체가 유리로 된 현대식 건축물이 될 예정.

▲웰링턴 남쪽의 토론토·도미니언 센터 건물 4층위에 추가건축 계획중. 그러나 이 계획은 옆의 로얄·욕호텔이 반대하고 나서 약간 문제가 있다. 로얄·욕호텔은 각 호텔·룸의 불빛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

▲로스트랜드공사는 세인트·클레어와 영·스트릿의 CFRB방송국 옆에 1천5백만달러 규모의 17층짜리 콘도미늄을 건축할 계획이다. 로스트랜드공사는 633셔본·스트릿에 천만달러짜리 5층 사무실 건물도 지을 계획이다.

▲데븐포트와 영에는 1천만달러짜리 15층 건물이 계획중에 있다. 레비뉴·프로퍼티즈회사가 맡은 이 건축에는 벤티크수탈교회당 1개, 63개의 아파트및 상가가 포함된다.

▲포·시즌즈호텔 회사가 칼튼과 자비스에 2층의 상가를 포함한 아파트 165개를 건축할 계획, 총공사비 1천3백만달러의 17층 건물이 계획됐다.

▲피봇투자회사는 메이올·김·가든 맞은편에 천만달러짜리 건설공사를 계획중.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16층짜리 아파트, 4층의 상가, 10개의 호화판 타운·하우스가 생긴다.

▲4억달러 규모의 새 노바·스코시아은행 본부 건물이 생길 계획. 이로써 베이·킹, 아델레이드, 빅토리아·스트릿의 다운타운 지역이 재개발될 예정이다.

▲CBC방송이 토이·톰슨·홀 뒤의 프론트·스트릿에 새 본부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

▲메트로경찰이 자비스·스트릿의 본부 건물을 2천만달러를 들여 다시 건축한다.

▲마라손부동산이 유니버시티·애비뉴에 3천만달러짜리 본부건물을 짓고, 선·라이프 보험회사도 유니버시티와 킹에 마주보는 2개의 고층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지난주에 발표된 새 건축계획까지 살펴보면 패이머스 플레이어즈부동산이 영과 블루어의 유니버시티 극장을 허물고 파킹장, 스케이트장, 1백개의 콘도미늄및 상가를 포함한 1억달러 공사를 계획한다.

캐나다 각 도시의 건축물허가 현황

City	Jan. - June 1981 (In million dollars)	Jan. - June 1982	% Increase Decrease
Calgary	1,003.9	716.8	-28.6
Toronto	178.4	368.5	106.6
Edmonton	563.7	352.5	-37.5
Vancouver	225.4	218.6	-3.0
Montreal	218.8	203.8	-6.9
Ottawa	65.8	138.7	110.8
Laval, Que.	100.3	129.0	28.6
North York	160.6	123.9	-22.9
Mississauga	313.8	115.5	-63.2
Regina	120.1	100.0	-16.7
Burnaby	37.3	94.1	152.3

인구억제책에 장애요소
아들선호 경향 여전

(서울1일=연합)한국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인구증가 억제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한국 여성들의 남자아이에 대한 선호경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인구건강원이 전국의 7천2백9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의하면 아들 2명을 둔 주부의 71%만 피임을 하고 있는데 비해, 2명이상의 딸을 둔 주부의 경우는 단지 41%만이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아들을 두지 않은 많은 주부들은 남자아이를 가질때까지 계속 아기를 낳기를 원하고 있으며,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내지 3명으로 이중 남자아이는 1명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임방법에 관한 설문중 피임실시 여성중 23%는 불임수술, 7.2%는 콘돔사용, 6.7%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이 조사서는 밝히고 있다.

길 안내용 미니컴퓨터

(서울28일=연합)길 안내용 미니·컴퓨터가 10월초 서울시내에 등장한다.

28일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88년 올림픽및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 외국인 방문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치하는 이 미니·컴퓨터는 크기가 공중전화 1배반정도로 1대당 가격은 미화 $940.

대통령 방문 뒷얘기들

◆임무수행에 신경을 쓰느라고 딱딱한 표정의 한국 경호원들과 장세동경호실장(육군 소장) 의 인상은 아주 대조적. 온유하고 인자한 인상을 주는 장실장을 보고 어떤 캐나디안 관리는 합참의장이냐고 물었다. 왕년의 서릿발 같은 유명한(?) 경호실장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보잉747 같은 대형비행기에 익숙치 못한 캐나다 군비행장은 대한항공의 정비사, 관제사들의 도움으로 대통령비행기를 무사히 이착륙 시켰다.

대조적인 데모대들
권총없는 한국경호원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2월 토론토에서 터진 전대통령 암살모의 사건도 있었고, 최홍희 중심의 반국가 세력도 있는 캐나다이기에 경호에 큰 신경을 썼다. 일설에 의하면 미국의 교포 태권도 사범까지 동원, 경호원이 약1백명에 이르렀다. 캐나다 관례에 따라 무기를 모두 놓고 내렸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더욱 긴장했으나, 연방경찰과 함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에드몬톤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오타와에 온 육사(11기)동기생 김형수씨는 전대통령이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막상 하고 있는 주유소업이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것 까지는 없어 신통한 대답을 못했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을 비난하는 데모대들도 아주 대조적. 토론토 스파다이너 선거구 출신 신민당의원 다니엘·힐과 연합교회 교단이 주축이 된 캐나다인데모대들은 "캔두를 팔지 말라", "기독인을 석방하라"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평화로운 시위를 벌인 반면, 반국가단체가 주동한 데모대들은 "살인마"등의 과격한 용어를 쓰면서, 자못 폭력적이었다. 그들은 사진찍는 기자를 발로 찼고, "죽여라"등 쌍소리를 마구 뱉으면서 취재를 방해했다.

◆29일 몬트리얼의 원호병원방문으로 도착 이튿날의 공식일정을 마친 대통령 내외는 여독을 풀면서, 하오 일부를 개인 면담으로 보냈다. 이순자여사는 원호병원에서 경기여고 46회 동기동창이면서 같은반 급우였던 서병영씨를 만나자, 왈칵 끌어안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트루도수상과 슈라이어총독의 통역을 맡은 문광순박사(40)는 캐나다동력자원부 소속 광물및 지하자원개발 기술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공대, 벵쿠버의 U.B.C.,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을 나온 문박사는 순박한 인품에 치밀성을 함께 가진 선광공학(Meterial Scientist)자이다. 작년 한국서 통상사절단이 왔을때 통역을 맡았으며, 이번에도 장관이 불러 장관실에 들어가니까 직접 통역요청을 하더라는 것.

◆조중훈대한항공 사장은 30일 트루도리셉션에서 대통령이 점보기(보잉747)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그것은 국력을 과시하는 한 수단이다. 그들의 원수도 DC-10 점보기(보잉747보다 약간 작음)를 타고 외국 나들이를 하니까."

미국대통령의 전용 공군1호기는 보잉747보다 훨씬 작은 보잉707이나, 똑같이 생긴 비행기 2대가 항상 함께 다닌다.

◆전대통령숙소인 총독관저에 들른 한국측 경호원들은 한동안 당황했다. 이유는 관리정문에서 출입자들에게 증명서 한장 보자는 사람도 없고, 또 시내버스도 관저 현관까지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이렇게 평화로운데가 어디있냐"고 고개를 설래 설래 흔들면서 경호원들은 대통령경호에 만전을 기했다.

金聖鍾작

어떤殺人 ⑦

친구와 당직을 바꾼 두봉은 회사로…

그는 시계를 본 다음 일어섰다. 퇴근시간이었다. 그때 이문기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퇴근하고 뭐할 건가?』

『뭐하긴…. 집으로 바로 가지.』

『그럼 요 앞에서 쇠주 한잔하고 가지 그래. 나 오늘 당직이란 말이야.』

『그래?』

『빌어먹을, 당직좀 없앨 수 없나. 오늘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말이야,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겠어. 빌어먹을…』

『그래?』

두봉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내가 대신 교대해줄까?』

『그러면 좋지. 그래도 되겠어?』

『상관 없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고마워. 역시 자네가 최고야. 자, 내가 한잔살테니까 나가지.』

회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식당을 겸하고 있는 조그만 주점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그는 한시간쯤앉아 떠버리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술을 마시다가 당직근무차 회사로 돌아왔다.

당직근무는 매일 밤 두명씩 하도록 되어있었다.

또 한명의 근무자는 영업부에 소속되어있는 김무근(金茂根)이라는 아직서른도 채 안된 청년이었다.

S제약은 영등포에서도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연건평 1천평의 아담한 5층짜리 빌딩이었는데, 2년전 빌딩을 새로 지어 입주하면서부터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여 지금은 은행빚에 몰려 언제 채권자의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밤새에 회사를 지키는 사람은 수위한명과 당직근무자 두명이었다. 수위는 마당 저쪽 정문 옆에 있는 수위실에 앉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지키는 사람은 당직근무자 두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난 그들은 바둑판을 놓고 마주 앉았다. 입사한지 1년밖에 안된 김무근은 두봉의 눈치를 보다가 넌지시 물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야 영업부에 있는 자네가 더 잘 알테지.』

『그래도 선배님은 여기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저보다는 잘 아실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돌아와서 운영을 맡고부터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글쎄, 뭐 그런 면도 있겠지.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니까.』

『차장님은 회사에 들어오신지 몇년쯤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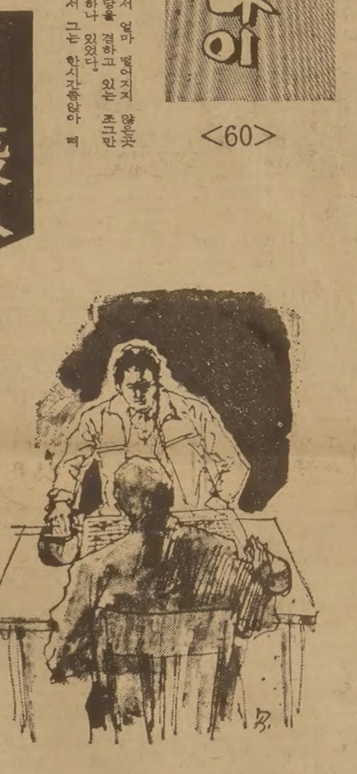
『에또, 그러니까… 햇수로 15년쯤 됐나본데…』

『어휴, 그렇게 오래 됐나요.』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다. 한심하게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입사 15년이 됐는데 차장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두봉은 연구실 소속이었다.

『세월 참 빨라.』

『전 요새 이 회사에 더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읍니다.』



朴 男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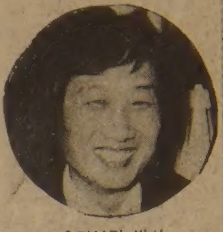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60>

행복한 부부의 코뮤니케이션2
"주는 행복감" 터득해야

김 보 경(심리학 박사)



◆김보경 박사

상호의견 일치로서의 코뮤니케이션

상대방이 하는 얘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편견없이, 또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해하려는 태도와 더불어 자기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부부는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좋은 문제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다.

상호행동 일치로서의 코뮤니케이션

부부는 서로 자기의 요구나 원하는 바를 상대가 이해하고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행복한 부부는 실로 일방적으로, 상대를 위해 희생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하는 부부라 보겠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만족시켜 주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만족시켜 주도록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 행복한 부부는 자기가 상대방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그 자체에서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상대방에게 무엇이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해 주었는지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도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 반찬 참 맛이 있다"라는 한마디는 아내를 말할 수 없이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이후에도 더 맛있는 반찬을 얻어 먹게 될 더 큰 가능성을 만든다. 아내는 남편의 그러한 표현을 통해 남편이 원하는 바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정성을 다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게되므로 그러한 반찬내지 대접을 되풀이 할 마음이 생기지만 만약 그러한 남편의 언급이 없었으면 우선 남편이 그러한 반찬을 좋아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자기의 정성이 무시됨으로써 다시 그러한 음식을 대접해야 하겠다는 아무런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아내는 때로 남편이 자상스럽고, 친절한 말을 했을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냥스럽고 기쁜태도로 그 친절에 반응하면 남편이 이후에도 그러한 기쁜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어쩌다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여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때 "당신 오늘 웬일이유? 이젠 친구들이 당신 돌려놓고 골프치러 가 버렸수?"하는 등의 말을 했다면 남편이 집에 있음으로써 아내 자신도 도와주고, 아이들과도 좀 놀아주었으면 하는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킬 기회를 스스로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때 오히려 평소에 가져왔던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말을 참고 "당신 오늘 집에 있어줘서 고마와요. 오늘 그대신 저가 써비스 잘해 드릴께요"하는 등의 표현은 남편을 가정에 취미를 붙이고, 자기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는 슬기있게 상대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상대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일치되는 행동을 보일때 기회를 잃지 않고 칭찬하고, 또 보상해 주는것을 보게 된다. 상호 이렇게 보상하다 보면 두 사람은 행동이 일치되고 소위 "잉꼬"부부가 되는 것이다.

감정일치로서의 코뮤니케이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본다. 그래서 어릴때 부터도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가르쳤다. 슬프다고 쉽게 울고, 기쁘다고 크게 웃는것 등을 억압해 왔다. 그러나 우리 개인생활에서 자유로운 감정표현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다.

부부생활에 있어서 감정의 표현, 특히 적극적 감정, 즉 애정의 표현 또는 행복의 표현등은 부부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만든다. 부부가 손을 잡는일, 부부가 애무하는 일, 부부가 서로 위로하는 일등은 부부의 감정을 서로 일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편이 감정을 이해하고, 또 아내가 남편의 감정을 이해할때 이것을 우린 사랑이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로맨스란 말로 표현하게 된다. 부부란 아무리 속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믿더라도 때때로 그 표현이 필요하다. 10년을 함께 살아오고 2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할찌라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 또는 생일선물, 꽃 한송이 사주는 일 등의 섬세한 사랑의 표현은 행복한 결혼생활에서 빼 놓을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우린 때로 서양사람들이 함께 잠자리에 들며서 "굿나잇"이나, 직장 나갈때 키스하고, 또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서로 키스하는 것을 보고 이상스럽게 느낄때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부부생활이 더 달콤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의심할 수 없다.

그런데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은 될 수 있는대로 감추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형태를 보면 미움이나 공격적 감정을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서로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도 되겠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부정적 코멘트를 하다 보면 상호 기분이 어색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싫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

우리들 부부간에 어떤 감정의 표현이 오고 가는지를 한번 주의깊게 관찰해 볼만 하다. 짜증스러운 표현, 역겨운 표현, 원망스런 감정의 표현, 행복의 표현은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적극적 감정과 일치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상호간에 만족의 표현은 한없는 안심과 위로를 가져온다.

부부의 일이나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누가 더 가치있는 일을 하는가를 나눌수 없다. 부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치되면 행복한 부부라 말하겠다. 그래서 우린 부부를 짝이라 말한다. 사실 짝이란 말은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서로 보상적인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해 준다. 한 켤레의 신발은 그 크기나 형태나 색깔이 서로 일치되면서도 왼쪽, 오른쪽으로 거울에 비치어진 그림자처럼 평형을 이룬다. 짝은 함께여야 제기능을 발휘하며, 짝 하나가 없어지면 남은 한짝은 거의 무력해 진다. 우리 동양에서는 짝이라는 개념을 우주의 본 원리로 생각해 온 것 같다. 음양설은 바로 짝의 원리를 말하고, 우리 한인들도 이 짝의 원리에 심취한 나머지 국기까지도 음양으로 표시한게 아닌가 생각된다. 음양의 관계에서는 우열이 없다. 동등한 힘과 크기를 가진 두 요소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두개가 떨어져 있을때에는 이룰수 없는) 창조성을 발휘한다.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계 속)

바로 잡습니다

지난 8월31일자 제2면에 실린 컬럼 김보경박사의 "행복한 부부의 코뮤니케이션 1"중 중간 제목이 빠졌읍니다.

서론에 이어 부부생활, 또는 가정생활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부터는 "상호의견 일치로서의 코뮤니케이션"이라는 소제목에 속한 글이었음을 밝히며, 「상호의견일치…」나머지 부분은 오늘 계속된다.

알림

1982년 Superten Golf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해당 Golfer의 참석을 바랍니다.

때 : 1982년 9월5,6일 오전 11시
곳 : Glen Eagle Golf 장 Bolton, Ont.
회 비 : $60

주최 :
토론토 한인골프협회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살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예 : Allen's Pure Apple Juice 48온스 $13.77 8월16일 ~ 8월28일)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성장일로의 우리 실협

8월말회원수 745명·총수입16만7천달러

협회는 지난 8월31일을 기하여 1982년도의 회계년도 마감을 실시했다.

종래 9월30일이던 회계년도말이 작년 11월의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한달 앞당겨졌으며, 이로 인해 본협회의 차선경 회장단은 취임 9개월만에 제1차년도의 결산을 하게 되었다.

작년 11월26일 총회당시 회원총수 610명, 수입예산 13만9천8백달러를 책정하였던 본협회는 불과 9개월간에 회원총수 745명, 실제수입 16만7천달러로 급성장하였으며, 지난 2월에 개설, 가동하기 시작한 Complaint상담실(실장 강공선)은 8월말 현재 479건이 본협회 상담실의 Hot Line을 통해 처리되었다.

한편 협회 사무실에는 여사무원 1명을 증원, 회원들로부터 우송되어 오는 상품의 쿠폰처리를 전담케 함으로써 82년도의 회원들의 쿠폰처리실 이용자수는 총 83명, 처리건수 145건을 기록했다.

82년4월30일 한인교포사회의 중심부인 불투어 거리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본협회는 현재 주평균 400여통의 전화문의와, 주평균 30명 이상 회원내방및 20명 이상의 각종 공급업자들의 내방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83년수입예산 $22만선
작년 비해 60% 증가

81년에 $10만2천, 82년에 $13만7천의 수입예산을 책정하였던 본협회는 지난 8월31일(82년 회계년도 마감일) 현재 $16만7천의 실제수입을 올렸으며, $5만5천의 잉여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다.

이는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특별계정에 예치된다.

한편 83년도의 신수입 예산은 $22만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82년도의 $13만7천에 비해 60% 증가현상의 보이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실협의 기차하에

금년들어 신규가입
평균 3일에 2명꼴

협회사무실의 보고에 의하면 신규가입 회원수는 금년 2월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 8월말 현재 회원총수 745명(한국인 정회원 720명, 외국인 준회원 25명(3%))이며, 그로서리나 바라이어티 이외의 업종회원은 26명으로 역시 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개월(210일)간에 135명(준회원5명 포함)의 신규회원이 가입하였으므로 평균 3일에 2명의 회원이 증가된 셈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2월 Complaint상담실의 가동이후 회원들이 당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협회의 차원에서 직접적인 해결방안 모색및 지원을 위해 일선에 나섬으로써,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의존도가 정신적 측면에서 크게 고무되었던 결과이며, 지금껏 독자적으로 경영해 오던 많은 상점들이 협회에 가입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고 간편하다는 것을 실감한 결과로서 협회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Complaint 상담실

회원의 35%가 이용
기간중 479건 처리

회원의 애로점을 협회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Complaint상담실 설치는 협회가 원하던 오랜 숙원이었는데, 이를 담당할 적임자가 발견되어 2월8일부터 실현을 보았다.

8월31일 현재 259개(35%) 회원상점과 37명의 외국인이 1회 내지 6회에 걸쳐 지난7개월간 상담실을 이용하여 총479건을 접수, 471건을 처리하고, 8건이 미결중에 있다.

지난 기간중 처리한 주요사항은 회원의 이해와 직결되는 Rebate와 Credit의 미결사항을 관계업자와 접촉하여 받아냈고, Salesman이나 Driver의 불친절한 써비스를 시정하는데 노력하였으며,Sales Tax나빈병등으로 야기되는 손님과의 Trouble을 법적근거에 입각하여 해결할 것등을 들 수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Metro News)잡지회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많이 개선되었음을 회원으로부터 듣고 있다.

당면한 가장 심각한 〈토론토·선〉문제는 극한 투쟁에 돌입하기 전에 각 방면으로 본사와 대결도 하고, 회담도 하여 시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본사측에서도 노력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실의 활동에 대한 일반회원의 반응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협회에 대한 회원의 요망과 반응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귀"의 역할도 하여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53개회사와
협상 137회

협회가 회원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업자들과의 Deal 추진에 있어서 차회장을 선두로 한 임원진은 중요상품으로 부터 단계적으로 각공급회사의 간부들을 불러 총53개 회사를 상대로 137회의 협상을 전개하였다.

그중 협정체결한 건수는 18건으로서 2대 우유회사로 부터 최고 28-28.5%의 리베이트(Rebate)를 따냈고, 3대 아이스크림 회사와 협상, 최고 리베이트 24-25%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2개 칩회사의 Promotion과, 처음으로 팝회사(Coca Cola 와 7-Up)와의 Promotion을 쟁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밖에 특기할 사항은 K.B.A. 고유의 16oz O.K.Bread (69cent)를 제작, 주평균 15,000개를 시판하고 있고, 아이스크림과 빵의 K.B.A. 전용표시 Window Sign을 제작공급하였으며, 이밖에 Pest Control의 독점 횡포를 막기위해 Globe와 P.C.O.의 2개회사와 협정체결 ,1회 살포에 각각 $8.00과 $7.50에 봉사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큰 성과였다고 보겠다.

신회계년도에 들어서면서 협회는 2차적인 상품에 대한 Deal 추진을 구상, 관계업자들과의 Appointment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아직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각 팝회사와의 협정및 잡지와 〈토론토·선〉 신문에 대한 개선책 모색을 위해 접촉을 진행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협상이외의 주요업적을 열거하면, 회원적립금 내역공표, Hot Line설치, 회원 여론조사 분석, 고문및 추천 변호사 선정, 교육세미나 개최, 사무실 확장이전, 여사무원 증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등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
정관기초

회원상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회의 지상과업인 협동조합은 관계위원들의 노력으로 불원 실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협회는 이의 실현을 위한 은행의 융자문제, 관계업자와의 제휴에 진전을 보고 있는 한편, 조합의 구성과 주식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도 수립되어 현재 정관초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조합의 문을 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으나, 총회에서 정관이 채택되면 곧 협동조합 실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태평양실업인협회(뱅큐버)
안준혁 회장 내방

8월30일 뱅쿠버에 소재하는 유일한 한국인 실업인협회인 태평양실업인협회 (Pacific Merchants Association)의 안준혁 회장이 본 협회 사무실로 차선경회장을 방문하고, 협회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 환담을 나누었다.

◆안준혁회장

수년전에 발족한 태평양실업인협회는 현재 1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7명의 이사가 있고, 회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임원으로는 최태주씨가 부회장직을, 그리고 이형률씨가 총무직을 맡고 있고, 고문으로 김경한씨가 있으며, 사무실은 안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도매상 PMM Wholesalers Ltd.(5861 Beresford St, Burn aby, B.C. 전화(604) 430-5322)에 두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협상으로 Ice Cream은 22-25%의 리베이트를 획득하였으나, 주요상품인 밀크에 있어서는 Dairy Land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최고 12%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상을 통하여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의 활동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안회장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하였고, '차선경회장은 모든 참고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으로서 협상에 관한 조언을 하였다.

뱅쿠버의 교포수는 6,000-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한국인 상점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상점의 매매가격은 주매상 $7,000 정도면 $9-10만 정도로서 토론토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고, 평균 마진은 25%이상 이라고 한다.

밀크의 이윤이 박한 반면에 담배 이윤이 높아서 예를 들면, 안회장이 경영하는 도매상(Wholesale)에서 $9.67에 내고 있는 담배가 소매로 평균 $1.35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두 협회가 앞으로 자주 정보를 교환하여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양측 회장은 다짐하고 헤어졌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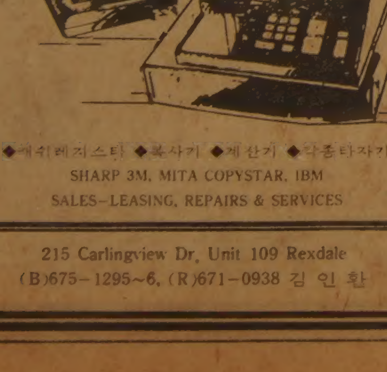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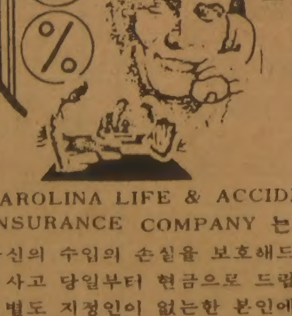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실협 지정
The professional pest controllers.
pco
Call PCO, to solve your pest problems.
Call : 699-9373
1472 Kingston Road,
Scarborough, Ontario M1N 1R6
P C O Services Ltd. Since 1952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 화보

◆이대사관저 리셉션장에서 교민들에 둘러싸인 대통령 부부가 악수하기에 바쁘다. 경호원들이 주위에 보인다.

◆충헌탑에 헌화하러 나가는 전대통령. 뒤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도열해 있다.(30일 상오)

◆대사관저 리셉션장에서 한인교향악단(지휘자 김승순).

◆전대통령이 트루도수상의 안내를 받으며 한·가 각료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공항도착 직후, 전대통령이 슈라이어 총독과 함께 사열대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 뒤에는 총독부인 리리.

◆토론토 욕데일 쇼핑센터 집합소의 새벽—28일 새벽 6시30분. 대통령 리셉션에 참가차 오타와로 올라가는 교민들이 영사관이 마련한 버스 앞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영식·변의섭·한사람 건너 이건영, 왼쪽부터 곽정열·고재혁·이형목·구본무씨.

◆28일의 교민초청 리셉션에서 전대통령이 조크하자 이규현 캐나다 대사는 양손을 모은채 눈을 감고 웃는지 찡그리는지….

◆교민들이 군기지 비행장 밖에서 데모중.

◆오타와 군기지 비행장에 내려 방명록에 서명하는 이순자 여사. 대통령, 슈라이어총독(오른쪽)및 기지사령관이 주의깊게 보고 있다.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제2회 8.15체전 결산서

교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을 힘입어 제2회 교민체전이 성공리에 끝나게 됨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나날이 발전하는 체육회로서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번 체전에 도와주신 분들의 명단과 결산서를 발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민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여러분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 장 이 병 권 올 림

〈제2회 캐나다 교민 체육대회 DONATION해 주신분 명단〉

강춘남	300
강찬영(변호사)	200
곽창수	100
김덕기(제일식품)	200
김규석(삼복식품)	300
KAL	500
KOTRA	300
KOTRA	(200)
김덕수	100
김문량·김련식	100
김영대	100
김원동	100
김만구(에코시가구점)	(300)
김용섭(은하보석)	200
김웅일(케네디꽃집)	150
김종조(종합보험)	400
김영규(크림톤하우스)	300
김정운(아카데미TV)	200
김칠웅	20
김홍량(임피리얼라이프)	100
도날드·최	(300)
박병원	300
박영제(상록회)	200
박인순(한인회장)	2,000
(오리엔탈·파레스)	—
배용문	1,000
배경락	100
배운산	200
무명씨	200
무명씨	20
문인식(신의상사)	300
양혜신	100
양길웅	20
양혜신(대한부인회)	100
염숙(보석상)	200
오영(STELLA)	300
오기환(D.Y.식품총판)	(400)
유영갑(Y)	100
유용근	300
원영신	100
원창호(체육회 이사장)	1,000
이건학(리스본 오토바디)	300
이진영(브램톤 스포츠)	300
이기학(한국관)	(300)
이기훈(무나미 트로피)	(300)
이대환(부동산)	(200)
이동환(다우스꽃집)	(300)
이병권(체육회장)	5,000
이상철	200
이영현(영리무역)	100
이원순(조흥은행)	200

이정석(거북이선물)	(300)
이춘수	100
원재훈(고려식품)	100
이인용(칠성인쇄소)	400
서춘봉(하르빈한약)	600
석종윤(씨름협회)	100
선경주식회사	(400)
성용창(유도협회장)	100
손병헌(한국비데오)	400
송대헌(노스욕 오토)	600
송종남	200
송우섭(쌍방울메리야스)	(400)
심태섭	100
신문 코리아 타임스	(600)
코리언 저널	(600)
민중신문	(600)
실업인협회	(800)
장순채(코리아타운 번영회장)	1,000
장영대(호남향우 회장)	100
장인수	30
장추신(미도파전문 백화점)	300
정용주	50
정운학	100
중앙교회	200
진경호	20
조동환	50
조지섭(아세아한약)	400
조충원(체육회 총무)	300
주재철(코리아 하우스)	300
차선경	1,000
차선철	10
차선행	20
최동주(서울여행사)	500
최동호(호 심)	100
최동명(훼미리 닥터)	(500)
최상수	23
최성태(1대 체육회장)	200
최승학(외환은행)	2,500
(외환은행)	600
토론토 총영사관	5,000
하청남	100
한상훈(신용조합)	(300)
한천석	50
한철환(한일은행)	300
한국식품(본점)	100
(서부)	100
(동부)	100
(미시사가)	100
함의현	300
함태호	100
함태민(동양식품)	100
황재필	200

〈복권상품 내주신 분〉

구진모 블루어 안경	1개	크리스챤디올 선그리스 제공
김영철 Big Seven	1병	북경호끌 약주 제공
김만구 에코시가구점	1개	Rocking Chair 제공
김창범 신세계여행사	1매	서울 왕복 비행기표 제공
김춘탁 킹스카메라	1대	카메라 제공
박광철 한인회이사	1대	T.V. 제공
송 영	30권	부리테니카 백과사전 제공
이기훈 무나미트로피	1개	골으셋트 제공
박영조 서울식품(서부)	9개	쌀 25Lb 제공
이창복 PAN-ASIA	7포대	쌀 20Kg 제공
유영린 코리언 저널	1매	영구 구독권
유용근 Y & Y Trading	10개	고급 손목시계
유지원 제일여행사	1매	뻐스, 유람선 관광 왕복권 제공
장추신 미도파백화점	1장	White Fox 목도리 제공
정철기 민중신문	1매	영구 구독권 제공
조지섭 아세아한약	1제	600불 상당 보약
조충원 체육회총무이사	2개	Travel Bags 제공
최동주 서울여행사	1매	서울 왕복 비행기표 제공
윤호섭 Kawai Keyboard Cen.	1대	고급 대형 전자올갠
조영호 토론토 노년회	100인분	체육회 임원 김밥 제공

〈화 환〉

코리아타운 번영회 일동
고광남 축구협회장
김용기 체육회 이사
박경택 스키협회장
원영신 서독 동우회
원장호 체육회이사장
이영민 체육회 이사
이종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이준규
서정길 태권도협회장

수 입

수 입	32,863.00
미 수 금	——
복 권 수 입	2,484.00
복권미수금	300.00

지 출

광고비	신 문	4,440.00
·	광고제작	2,590.00
·	재료비	750.00
·	T.V.	919.35
운동장	시설비	1,984.41
·	운동기구	1,150.00
·	사용료	920.00
상 품	복권상품	1,747.50
·	경기상품	954.92
인쇄비	초청장·프로그램	925.00
·	사진	500.00
유니폼	·	1,681.13
기념품·트로피	·	4,440.00
사무실 경비	사무용품	555.48
·	전기사용료	614.67
·	통신비	100.00
·	인건비	300.00
운동장 보험료	·	300.00
접대비	귀 빈	471.87
진행위원간담회비	·	
회의비	·	250.00
기 타	화 환	697.05
	·	300.00
	Misc. 그외 잡비	640.38
		200.00
		28,427.00

※체육대회 복권에 당첨되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아직도 상품을 찾아 가시지 않은 분은 미도파백화점으로 오셔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 TEL; 536-1692

※당 체육회에 복권상품기증 • 쌀 25Kg 제공하신 분은 한국식품서부가 아니고, 서울식품서부 지점으로 정정합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獨立기념관 내년着工

87년 8월15일에 開館

汎국민 誠金운동 전개

각계 代表 55명 準備委… 총예산 5百億

被侵·항일運動史등 展示… 古代·中世館도

항일독립 투쟁사를 종합전시할 獨立紀念館이 5천만민족의 이름으로 세워진다. 지난날의 민족적수난을 되새기고 민족정기의 求心點역할을 하게될 독립기념관은 범국민모금운동을 통해 87년8월15일까지 건립된다.

문화예술계·독립유공단체·일반사회단체·경제단체·정계·언론계·교육계·종교계·법조계등 각계대표 55명은 28일 상오10시 서울 中區 筆洞 한국의집에서 獨立紀念館建立準備委員會를 구성, 위원장에 朴順天여사(84·前 국회의원)를 추대하고 『지난날 갖가지 榮辱의자취속에서 슬기롭게 배울것은 배우고 버릴것은 버려 새로운 발전의 의지를 가다듬는 전민족의 교육장으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기념관건립 발기 취지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기대회에서는 이운동을 주도할 민간단체인 독립기념관 건립위원회를 법인체로 곧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독립기념관 준비위원회의 건립계획에 의하면 올해안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계획및 부지를 확보한다음 내년에 착공, 84년부터 사료조사·수집·정리·제작을 3년동안 하며 광복절에 개관할 예정이라는것.

독립기념관에는 우선 1875년 雲揚號의 침입으로부터 1945년 8·15광복까지 70년간의 抗日獨立鬪爭史를 중점적으로 전시한다.

기념관의 전체규모와 立地등은 앞으로 과제로 남았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계획되고있다.

독립기념관은 1875~1945년까지 70년간의 抗日獨立鬪爭史전시외에 앞으로 古代館·中世館·近世館과 現代館까지 갖추어 명실공히 민족적 大歷史教育場으로 만들 계획이다.

발기대회에 참석한 각계대표는 다음과같다.

◇민족精神 殿堂의 첫발 독립기념관 건립발기대회에서 朴順天여사가 『늦은감은 있으나마 이제 그 殿堂을 세우고자 우리 모두 첫걸음을 내디디자』고 취지문을 밝히고있다.

◇獨立紀念館건립 準備委員 명단

◇文化·藝術界(5名) ▲金東里(예술원회장) ▲宋志英(문화예술진흥원원장) ▲申榮均(예총회장) ▲申泰煥(학술원회장) ▲李殷相(민족문화협회회장)

◇獨立有功團體(7名) ▲金國柱(광복군동지회장) ▲金相吉(광복회회장) ▲金載浩(독립동지회회장) ▲金柱興(흥사단단장) ▲전창신(3·1여성동지회회장) ▲趙繁韓(독립유공자협회회장) ▲崔昌圭(순국선열유족회회장)

◇一般社會團體(7명) ▲金甲順(대한YWCA연합회장) ▲김규벽(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직무대리) ▲金準(새마을지도자연수원원장) ▲孫仁實(여성협회회장) ▲元興均(대한노인회회장직무대리) ▲千寬宇(민족통일중앙협의회회장) ▲許雄(한글학회회장)

◇經濟團體(4名) ▲申秉鉉(한국무역협회회장) ▲柳琦諄(중소기업 협동조합회장) ▲鄭壽昌(대한상공회의소회장) ▲鄭周永(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政界(4名) ▲權翊鉉(민정당사무총장) ▲柳漢烈(민한당사무총장) ▲申喆均(국민당사무총장) ▲李沅衡(新社黨사무총장)

◇言論界(4名) ▲文胎甲(한국신문협회회장) ▲柳建浩(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李肯珪(한국기자협회회장) ▲李元洪(한국방송협회회장)

◇教育界(3名) ▲朴吉眞(대학교육협의회회장) ▲徐龍澤(전국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회장) ▲柳炯鎭(대한교육연합회회장)

◇宗教界(5名) ▲金壽煥(천주교추기경) ▲兪虎濬(기독교지도자협회회장) ▲李性徹(대한불교조계종종정) ▲李永福(천도교교령) ▲李載瑞(성균관관장)

◇法曹界 ▲김택현(대한변호사협회회장)

◇其他(15名) ▲강신명(목사) ▲金信(前교통부장관) ▲朴順天(前국회의원) ▲白樂濬(前연세대총장) ▲우승규(前언론인) ▲劉錫鉉(민정당총재상임고문) ▲이강훈(원호처 독립유공자 심사위원) ▲이숙종(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李弘京(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회장) ▲李熙昇(서울대 명예교수) ▲張聰明(재일한국거류민단장) ▲鄭在覺(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한경직(목사) ▲咸錫憲(前「씨알의소리」발행인) ▲홍승면(前언론인)

韓·加 내일 頂上회담

全대통령 오늘上午 오타와到着

◇全斗煥대통령내외가 朴善昊총영사가 교민을 위한 리셉션에서 라스팔마스 교민들을 접견하고 있다. 【라스팔마스=청와대기자단】

【오타와=尹國炳특파원】全斗煥대통령은 29일상오(한국시간) 마지막 巡訪國인 캐나다에 도착했다.

全대통령은 30일하오 트뤼도수상과 頂上회담을 하는등 3泊4日간의 공식일정을 갖는다.

이에앞서 아프리카 4개국 巡訪을 마치고 라스팔마스에 寄着한 全대통령은 28일하오 5백여명의 교민과 州정부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이곳을 떠났다.

라스팔마스 僑民 全대통령이 격려

【라스팔마스】全斗煥대통령은 27일하오(한국시간 28일 새벽) 라스팔마스에 거주하는 韓國교민들에게 『제5공화국 출범이래 우리가 추구해 오고있는 정의·복지사회는 여러분과 같이 조국을 위해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가 돌아가는것을 목표로하고있다』고 말하고 『국내에 있건 해외에있건 각자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때 부강한 조국건설의 이상은 어렵지않게 실현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라스팔마스의 카마린도스 호텔에서 朴善昊총영사가 교민을 위해 베푼 리셉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멀리 이곳까지 온것은 다 잘살아보자는 염원에서 였을것』이라고 말하고 『나혼자만 더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다같이 잘사는 同胞社會의귀감을 반드시 보여줄것』을당부했다.

이에앞서 崔昌鎭교민회부회장(48·무역업)은 인사말을통해 『우리 교민들은 합심단결하여 최선의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조국의 새시대 새역사건설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大林수산기지장 玄海원씨등 10명의有功교민에게 대통령표창을주고 이들을 숙소로 불러 만찬을 베풀며 치하했다.

DMZ순찰 美軍 실종

駐韓美軍司 발표 "北傀軍에 被拉… 억류중인듯"

판문점 부근 비무장지대를 순찰중이던 미군 병사1명이 28일 새벽 실종, 이 병사가 납북돼 북괴측에 억류중인것 같다고 이날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표했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발표에서 『이병사가 순찰근무 교대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병력을 동원, 수색했으나 찾아내지 못했으며 아마도 북괴군들에 의해 억류되어있는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실종당시의 상황과 병사의 신원등은 구체적인 조사가 끝난뒤에 발표될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또 사고직후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비서장을 통해 공산측에 메시지를 보내고 실종된 병사가 공산측 DMZ에서 발견되면 즉각 송환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하오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휴전선 지역에서 미군병사가 실종된것은 지난79년 12월이래 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79년 12월에는 3명의 미군병사가 비무장지대 순찰중 길을잃어 북괴 지뢰지대에 잘못들어가 2명은 지뢰폭발로 숨지고 생존자1명은 북괴군에 억류되었다가 송환됐었다.

올 實質성장率 6%전망

물가5%線안정… 景氣 회복勢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가 지난 62년이래 가장 낮은 5%선에서 안정되는 가운데 6%수준의 착실한 실질성장을이룩, 3년여에 걸친 高物價속의 불황을벗어나 안정궤도에 들어서게 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경제의 회복속도가 조금더 빨라져 7%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5%선에서 계속안정될것으로 예측됐다.

28일 관계당국에서 밝혀진 「82년경제전망」에 의하면 상반기중 4·6%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들어 농수산부문의 쌀작황 호조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7%를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며 이에따라 올해 연간상승률은 6%수준을 기록하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10~14%까지 오를것으로 예상했던 물가(도매)는 상반기중 2·9% 상승에 그친데 이어 하반기에도 국제원자재가 안정세를 유지, 연간 상승률이 5%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중 1백3억달러에 달했던 수출은 하반기중 1백17억달러를 달성, 연간으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백20억달러에 이르게되며 수입은 0·4%증가에 머문 2백62억달러(하반기중 1백4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둔화등으로 경상수지적자는 크게 호전돼 지난해(45억달러)의 절반이하 수준인 20억달러로 줄게된다.

내년에는 해외경기의 완전한 회복과 6·28조치및 통화의 신축적운용등으로 경제의 회복속도가 좀더 빨라져 연7%의 실질성장을 이룩하게되며 물가는 계속해서 5%수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적자도 다시 15억달러로 폭이 좁아져 외환사정은 상당히 개선될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의 수출은 올해보다 13·5%늘어난 2백50억달러에 달하게되고 수입은 2백60억달러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韓·中共의뜻 교육에 反映

현교과서 經過조치 10월發表 日文部相

【東京=宋孝彬특파원】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 일본문부상은 27일 衆議院문교위에서 앞으로 2년동안 그대로 사용될 교과서에 대한 경과조치는 오는9월중순의 검정조사심의회답신이 나오는대로 10월께 문부성담화로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가와문부상은 또 『한일공동코뮈니케, 日·中共공동성명의 정신을 보다 「교과서에 잘 반영시키도록 한다는 취지로검정의 기준이 바뀌게됐다는점을 주지시키고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이점을 염두에두고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野黨의원들은 문부성의 그같은 담화정도로 현장교육에서의 교과서 「訂正지도」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新자유클럽의 코노·오헤이(河野洋平)의원은 정부가 시정방침을 밝힌 교과서의記述수정에대해 초당파적으로 수정을 촉구하도록 의원입법을 통과시켜 처리할것을 제안했다.

한국, 日誠意이해 신속反應에 감사

사꾸라우찌

【東京=聯】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日本외상은 27일 한국정부가 다소의 불만이 있으면서도 일본정부조치를 평가한것은 일본의 성의를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꾸라우찌외상은 또 이날 회견을 통해 한국정부의 신속한 반응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무성측은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진정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뿌리깊은 한국내 反日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柳民韓총재 歸國

柳致松民韓黨총재는 18일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자유중국등의 공식방문을 마치고 28일하오 귀국했다.

柳총재는 지난11일 民韓黨의 金泰洙·徐淸源의원등과 함께 출국, 사우디방문에서 사우디정부요인과 만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으며 臺北방문에서는 蔣經國총통과 韓中우호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會漫評

注視기구 만들기로…

地平線

『어머니 뱃속처럼 /낯선 데서는 /꿈이 익는다 /글이 익는다』―영문학자이자 시인이었던 宋稶은 생전에 이렇게 읊었었다. 제주도란 어머니 뱃속처럼 그리운 평화의 고장이요, 그러면서도 뭍의 도시인에겐 가슴이 뛰는 낯선 곳이자, 꿈이 있고 글이 있는 곳이다. 재치가 넘치던 시인이 남긴 제주도 예찬의 한토막이다.

▼조선왕조 초엽을 빛낸 학자 徐居正은 15세기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제주도를 남녘땅이라고해서 「扶桑」이라고 불렀다. 『서리같은 눈 덮인 꽃사이 파랑새 울고 /서리빛 짙은 울타리에 누런 귤이 주렁주렁…』―제주도라면 20세기를살다간 宋稶처럼 徐居正에게도 역시 누런 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남국의 누런귤은 또한 담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제격이었던 모양이다.

▼한반도의 남쪽끝에 멀찌감치 서있는 제주도에서 사람들은 뭍에서 볼수없는 아예 딴판의 세상을 보게된다. 아열대에 가까운 풍토에다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의 독특한 자연에 놀라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보고싶은 신혼여행지는 「제주도」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아 46·5%나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갤럽조사연구소).

▼여행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낯선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낯선 자연과 문화와 사람을 찾아 일상적인 생활에서 탈출해보자는 것이다. 옛날같으면 평생을 태어난 마을에서 벗어나지못했을 서민들도 이제는 너도 나도 여행을 즐기는 시대가 됐다. 이번 여름에는 3천만명이 피서여행을 했다는 짐작이 나올만큼 됐다. 소위 레저의 대중화시대다.

▼레저가 대중화돼가고있다지만 徐居正과 宋稶이 예찬했던 제주도는 아직도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18세이상의 남녀 1천2백여명중에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겨우 12·2%에 지나지않았다고 갤럽조사는 말하고있다. 그만큼 제주도는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동경의 대상이다. 그 제주도가 지방행정당국의 결정으로 제모습을 파괴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썽이 일고있다.

▼3多의 섬 제주도의 간판과도 같은 돌담을 헐어 시멘트로 만들자는 도당국의 결정이 문제되고 있다(日刊스포츠 28일자11면 보도). 지난2월 이계획을 내놓았다가 반대가 빗발치자 한걸음물러서서 「제한된 범위에서」 돌을 팔겠다는 발표다. 제주도가 살길은 제주도의 독특한 풍물을 살리는데 있다는것을 잊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더구나 徐居正이 읊었던 돌담은 행정관료들이 팔아 넘기기엔 너무나도 소중한 몇천년 전통의 산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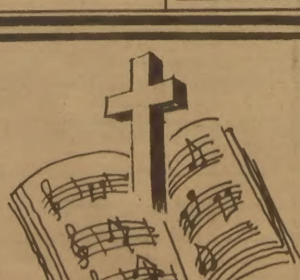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 창립 제10주년 기념 ══

장로 장립및 권사취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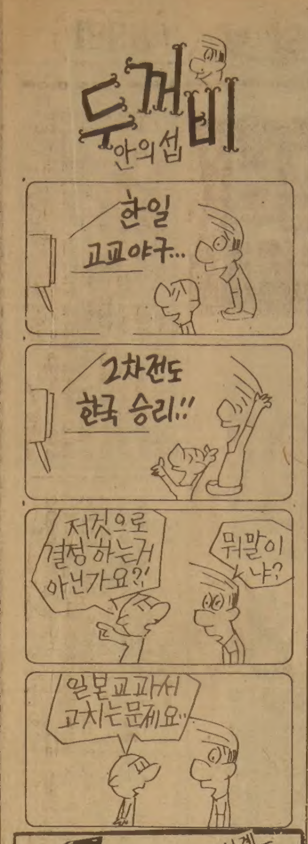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중앙교회에서는 창립 제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로장립및 권사취임식을 통해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고자 하오니 많이 오서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음

장로장립 : 조진동 집사 이성민 집사
권사취임 : 김주원 집사 조수옥 집사 박묘식 집사
장 소 : 토론토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Tor. (Bathurst & College)
일 시 : 1982년 9월12일(주일)
● 오후 5 시 : 예식(본당) ●
● 오후 6 시30분 : 축하연(친교실)

토론토중앙교회 당회장 정관일 목사 및 교우일동



空港출국자 檢索강화

X레이 판독등 警察·稅關이 직접담당

한국安全기업은 「保安위해물」등 보조業務만

속보=金浦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및 수하물검색이 강화된다.

교통부 관세청 치안본부등 공항운영협의회는 검색원을통한 외화밀반출사고를 막기위해 27일하오 관계관회의를열고 한국안전기업소속 검색원은 항공법상 항공사가 책임지도록 돼있는「보안위해물」검색만 대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경찰과 세관에서 직접 검색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보안검색을 감독만해오던 경찰과 세관이 앞으로 직접 X레이투시판독을 하게되며 안전기업직원은 보조업무만 하게한다는것.

또 공항운영협의회는 출국자가 현재 수하물검색을 받은후 좌석배정을 받던 출국수속순서를 바꿔 먼저 좌석배정을받고 짐을부치면 출국자와 차단된곳에서 짐검사를 하게끔 X레이검색기를 옮기기로 했다.

또 세관도 金浦공항 2층 출국장에 근무하는 세관원을 현재 14명에서 28명으로 2배증원배치키로 했다.

한국安全기업 직원 5명 拘束

홍콩인 거액밀반출 기도사건과 관련, 영장이 청구됐던 한국안전기업(KSC) X레이검색반 조장金燦洙씨(37·서울江西區內鉢山洞주공아파트21동201호)등 5명이 모두 외환관리법위반및 배임수증재 혐의로구속수감됐다.

서울大 작년 8백7명除籍

未登錄者가 6백3명 最多

지난한해동안 서울대 재학생중 8백7명이 제적된것으로 밝혀졌다.

제적내용을 사유별로 보면 스스로 등록을하지않은 학생들이 6백3명(대학원2백52명포함), 성적불량으로 인한 학사제명이 1백82명, 자퇴가 3명이며 학내문제등 기타가 19명이다.

대학별로보면 농대가 1백15명으로가장많고 사대84명, 공대81명의 순이었으며 가정대 수의대가 각각14명, 치과대가 2명으로 가장적었다.

스스로 등록을하지않은 학생들중에는 경제적 사정때문인 학생들도있지만 많은학생들이 학과가 적성에맞지않아 등록을 하지않은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서 9명死亡·실종

江原·慶北 豪雨…罹災民 5천여명

태풍엘리스 消滅…오늘부터 점차 맑아져

동해북부 해상에서 소멸된 제13호 태풍 엘리스의영향으로 강원과 경북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져 28일하오 현재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모두 11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또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에 의하면▲이재민 5천1백49명▲건물피해 1천2백70동▲선박피해 6척▲농경지 침수및 매몰 1천6백60정보▲도로및 교량 44개소 2천59m▲제방 43개소 3천70m가 붕괴또는 유실돼 모두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편 이날 大關嶺 일대엔 하룻동안 무려 3백18㎜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다.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물러감에따라 28일오후부터 영동지방의 폭우도 완전히 그쳤다고 밝히고 태풍주의보와 호우경보등을 모두 해제했다.

기상대는 일요일인 29일에는 구름이 다소끼다가 점차 맑은날씨를 회복, 18~31도의 다소 무더운기온분포를보이겠다고 예보했다.

【春川】28일상오 1시께 강원三陟郡 道溪邑 上德4里 4班앞동덕천 새마을다리위에서 귀가중이던 김준귀씨(46·道溪邑上德里6班)가 강한 바람에휘말리는 바람에 다리밑으로 떨어져익사했다.

▲28일 새벽2시께 江陵市月呼坪洞 속칭 새바우골 비행장부근 개천에서 이마을 李용학씨(34)가 숨져있는것을 같은마을 方훈력씨(52)가 발견했다.

▲27일 하오5시께 東草市琴湖洞 15통4반 金李泰씨(55)집 뒷산이 무너지면서 金씨집을 덮쳐 안방에 있던 부인 李淑子씨(42)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날하오4시께 강원溟州郡注文津邑長德里9반김화옥씨(50·여)가 마을앞 신리천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다.

▲이날 하오3시께 三陟郡未老面下巨老里10반 김진택씨(41)가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마을앞하천을 건너다급류에휩쓸려실종됐다.

▲이날 하오5시30분께 江陵市楡川洞4통1반 이옥남씨(61·여)가 마을앞 하천에 놓여진 깊이3m의 다리를 건너다 실족,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날 하오6시20분께 東海市香爐洞 동호천이 범람, 개천옆 저지대에있던 심진섭씨(67·香爐洞14통3반)집이 침수되자 가재도구를 가지러 들어갔던 부인 추수기씨(50)가 10평짜리 목조가옥과함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이날하오5시께 경북清道郡錦川面林唐洞앞 清道川이 범람해 하천안쪽에 있던 주민 24명이 고립됐으나 대구K2공군기지의 헬기가 출동, 이날하오6시10분께모두 구조했다.

▲이날하오5시께 강원高城郡杆城邑廣山2里의 李창수씨(42)등 주민12명이 마을앞뒤를 흐르는 강물에갇혀 한때 고립됐었다.

경남 백월산서 발견

三國遺事기록 통일新羅때 절터

【馬山】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가 경남 義昌郡北面月栢里 백월산에서 실제로 발견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이곳을 발견한 馬山大사학과학술조사단(단장 박동백교수)에 따르면 이절터는 백월산정상남부 두곳에나뉘어 있는데 주춧돌 석불 석등 기와조각과 탑제부분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것.

박교수는『삼국유사에 기술된 미륵동법당터가 이곳현지주민들이 사용하고있는 지명과 같아 조사를 편끝에 절터를 찾게됐다』며『삼국유사에 기술된 절터를 실제로 확인하게된것은 삼국유사의 사실정확도를 입증하는 좋은계기가됐다』고 말했다. 【聯合】

日製시계등 密輸 선박調理長 영장

【釜山】釜山세관은 28일 中區中央洞4가 대우해운소속 제2유남호(1천3백톤) 조리장 이광태씨(32)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제 카시오남자손목시계 1백개와 카메라등 싯가 7백여만원어치의 밀수품을 압수했다. 【聯合】

잇단 毒버섯사고

慶北지방 47명中毒 3명숨져

【尙州】긴 가뭄의 영향으로 버섯에 독이 올라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尙州·聞慶·醴泉등 경북북부지방 산간지에서 야생버섯을먹고 47명이 중독, 이중 3명이 숨졌다.

28일 하오5시20분께 尙州郡보건소에 따르면 27일 尙州郡靑里面靑上里511 이여근씨(56) 일가족 4명이 마을뒷산에서 따온 잣버섯으로 국을 끓여 먹은후 심한 구토와 설사끝에 이씨의 둘째딸 경자양(12·중2년)이 숨진것을 비롯, 지난12일부터 지금까지 야생버섯을먹고 27명이 중독돼 3명이 숨지고 3명이 치료를 받고있다는것.

이와함께 聞慶郡에서13명, 醴泉郡에서도 7명의 야생버섯 중독환자가 발생했다. 【聯合】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사당의 내부. 중앙에 論介의 영정이 모셔져있고 그 우측으로 敵將 게야무라의부인 게야무라와 그의 처제의 위패가 차례로 놓여져있다.

日서 모독당하는 「論介의얼」

壬亂때 水葬된 敵將의 祠堂에 影禎봉안

처·처제함께 나란히 마치 愛妾인양 취급

10년전 日실업가가 晋州서 모래등 가져다 건립

◇日本九州 英彦山중턱에 세워진 論介의 사당「寶壽院」。論介의 영정과 論介가 水葬시킨 敵將게야무라의 위패가 나란히 놓여진 사당앞에 벚꽃이 만발해 있다.

【晋州 이동독자부=金蘂기자】義娘 論介의 영정이 日本땅에 옮겨져임진왜란때 그녀에의해 수장(水葬)된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께(毛谷村六助)와 함께 봉안돼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晋州의향토문화재인들과 최근일본의 論介사당을 다녀온 사람들에의해 밝혀졌는데 적장(敵將)게야무라는 물론 그의부인, 누이동생과 함께 봉안돼 있다는것.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학자들은 물론 많은사람들은『임진왜란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바친 論介를 마치 왜장의 애첩인양 함께 안치해 놓은것은 국민감정이 용납되지 않는일이며 또다른 형태의 역사왜곡이다』고 분노감을 표시한다.

義娘論介는 3백89년전 임진난때 晋州城 혈전(1593년)에서 당시 한국침략의 선봉장이었던 도요또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막료였던 로꾸스께를 끌어안고 南江에 몸을던져 왜장을 수장(水葬)시켰던 義妓였다.

論介의 혼백이 담긴영정이 일본으로 건너가게된것은 일본인 실업가 우에즈까 하쿠유씨(上塚博勇·53·新九州管財주식회사 사장)에 의해서 였다.

우에즈까씨는 10년전 자신의 소유인 英彦山 중턱 3천여평의 땅을 손질하던중 老松밑에 버려진 비석2개를우연히 발견했다.

우에즈까씨는 이 비석이 敵將 게야무라가 도요또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막료로 발탁되어 한반도로 출정하기 직전 요절(夭折)한 아내 오기꾸와 처제 오소노의 넋을 위해 세운 비석임을 밝혀냈다.

우에즈까씨는 이 비석의발견을 계기로 게야무라의 한국에서의 水葬사실을 알게되었고 論介의 애국혼에매료, 게야무라의 고향인 英彦山에 論介의 사당을 건립키로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우에즈까의 한 측근에따르면 사실인지 알수없으나 그는 평범한 생활인이요 사업가였으나 論介의 순국에매료되어 그후세계주의자 또는平和주의자로 사상적인 변화를 겪었다고한다. 우에즈까씨는 일본에 論介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그후한국을 46차례나드나들며 晋州와 論介의 고향인 長水등을 섭렵하며 역사학자와 향토 문화인들로부터 고증과 관계자들의 자문을받왔다.

그는 사당을 짓기위해 長水의 돌을 공수했고 晋州의 모래를 퍼 날랐다고한다. 또 晋州화백 崔泰汶씨에게 부탁해서 論介의 영정을 그려 일본으로 가져갔고 論介의 넋을「모셔가는」날에는 南江 義岩에서 1천마리의 종이학(千羽鶴)을 날리는 일본식 초혼제도 거행했다.

論介의 넋을 모셔가던 날 그는『南江물 푸르고, 論介혼 붉고, 한의 얼 영원하고…』라는 자작시까지 지어 낭송했다고한다.

그는 論介사당 건립준비를 하던 3년간 論介의 처녀혼을 위해 가사장삼을 입고 머리에는 방립을 쓰고 다녔고 1천만엔의 경비를 썼다.

주위의 비난은 빗발치듯했다. 일본인들은「일본장수를 죽인한국여인을일본땅에서 제사지낼 수없다」는이유로 우에즈까씨를 비난했고 한국사람들은「論介와 敵將을 함께 모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敵將의 부인, 처제와 나란히 위패를 세우는 것은 論介혼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로 역시 우에즈까씨를 비난했다.

그러나 우에즈까씨는『論介는 위대한 조국애의 여성이다. 그리고 죽어서 成佛했음으로 증오나 원한의 차원을 넘어서있다』는 신념으로 사당건립을 추진했다고 한 측근은 변명한다.

論介의 사당은 게야무라·로꾸스께(毛谷村六助)의 전설적인 고향인 九州후꾸오까縣 다가와(田川)교외 英彦山중턱에 세워졌는데 사당안에는 論介의 70호크기 영정이 중앙에 걸려있고 그 옆으로 敵將 게야무라와 게야무라의 일본인 부인 오기꾸(御菊)와 오기꾸의 누이동생 오소노(御園)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있고 작은 불상 1개가 論介의영정과 게야무라 일족의 위패를 지켜보고 있다.

사당 밖으로는「朱論介之墓」라고 쓴論介의 묘비가 역시 게야무라의 묘비와 나란히 서있고 그옆으로는「壬辰之役(임진왜란의 일본식 표현) 日韓戰歿軍官民위령비」가 서있다.

論介의 묘비 옆으로는「연꽃을보고 自淨을안다」는 묘비명도 새겨져있다.

論介사당을 건립한 우에즈까씨는 그후 해마다 晋州城방어전의 마지막날이고 論介의 순국일인 음력6월29일이면 論介의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진혼제를 지낸다.

그러나 晋州의 향토문화인들 중에는 論介사당의 이같은 구조를「義娘의 순백한혼을 모독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있다. 晋州의 원로시인 薛昌洙씨는『우에즈까씨는 아마도 죽음에대한 일본적인 美學에 사로잡혀있는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平和主義의 論理로도 論介와 게야무라가 같은 사당에 모셔질 수는없는것』이라고말했다.

또 게야무라의 부인, 처제와 함께 論介의 영정을 모신 것은『사회적신분이 기생이라는 이유로 論介를 遊女로 본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또 晋州의 향토사학가金相朝씨도『수년전 우에즈까씨가 晋州를 방문, 고증을위해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그같은 사당건립이 민족감정에 역행할것 같아서 일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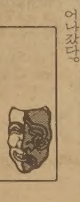
한편 우에즈까씨에게 論介의 영정을 그려준 晋州 화백 崔泰汶씨는『사당을 짓는다기에 영정을 그려준것뿐인데 게야무라의 부인, 처제와 나란히 모실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여하튼 해마다 論介사당에서는 진혼제가 베풀어질것이다. 그러나 義娘의 넋은 편안할수 없을것이 분명하다.

거북선 人生

模型제작의 1人者 張師洪씨

「自強」의 표본… 10년간 1만5천개



張師洪씨(57·사진)는 28일 1만5천1번째 거북선모형 제작을마무리 지었다. 비록 實物大 16분의 1크기의 목재모형이지만 어느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였다. 釜山시장이 29일 자매도시 로스앤젤레스에 보내는 한미수교1백주년 기념선물로 태평양을 건너기 때문이다.

張씨는 거북선모형제작의 1인자. 그가 만든 1만5천척의 거북선은 합금 플래스틱 또는 목제품으로 모국을 찾았던 재외동포나 외국귀빈들에게 기증되어 세계각국으로 뻗어나갔다.

張씨가 거북선만들기에 관심을가진것은 올해로 10년째가 된다. 7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할때 충무공전서속의 龜船해설문을 토대로 조그만 거북선목제모형을 만들었다.

그해 봄 이 모형을 들고 전국을 돌며 충무공정신선양강연을 했다. 이때 어딜가나『와! 거북선』하는 탄성과 함께 아이들이 뒤를따랐다. 가눌길없는 감격에서 우리민족의 슬기가어린 거북선모형제작에 일생을 걸것을 결심했다.

76년 그는 사재를 털어 50분의 1크기의 청동·합금제 거북선 20개를 만들어 청와대 문공부 해군본부등 요로에 기증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해 고국을 찾은 재미기독교실업인단과 재일동포2세들에게 당국이 주는 선물로 張씨의 거북선모형이 선정돼 6백여개가 공급됐다. 해군에서도 3백78분의1 모형 2천개를 주문했다.

상공부는 81년 민예품전문생산업체로 지정했고 특허청도 실용신안특허를 내줬다.

거북선에 미친 10년새 고향(경북榮州)의 논밭 7천여평과 집까지모두 날렸다. 지금도 道峰區水踰洞에 보증금2백만원에 월25만원의 셋집을 얻어「거북선연구소」간판을 내걸고 어렵게지내지만 충무공의얼을 전한다는기쁨에산다.

가진것은 7종류의 거북선금형뿐. 그러나10년간 연마한 거북선모형제작의 기술과 명성은 돈으로 셈할수없는 재산으로 간직하고 있다.

『거북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뛰어난 슬기로 거북선같은 훌륭한 배를 만든 조상을 본받아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본교과서왜곡」사건이 아니더라도 그의말이 바로 「自強」의주장 아닐까. 【申鉉鈺기자】

"未成年者 사고땐 父母가 책임져야"

大邱지법, 損賠판결

【大邱】미성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법정보호감독자인 부모가 자녀보호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책임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大邱지법제4민사부(재판장 鄭鎔仁부장판사)는 28일 大邱시南구 大明1洞3337의 許德萬씨 일가족 3명이 같은동네 梁閏植씨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梁씨부부는 원고측에게 4백32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자기의 행위에 대한 잘 잘못을 판별할수없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법정보호감독자인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許씨는 지난1월29일 하오3시께 집앞에서 아들 영군(8)이 梁씨의 아들(12)과 함께 놀다가 梁씨의 아들이 못을 장남감총에 꽂아 발사하는바람에 오른쪽 눈을 찔려 수술까지 받는 상해를 입게되자 지난3월 梁씨부부를 상대로 7백5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大邱지법에 냈었다. 【聯合】

후지銀行 집기부숴

"역사歪曲에 항의"

27일 밤10시께 서울中區南大門路1街18 대일빌딩내 일본후지은행 서울지점에 金桓敎씨(38·무직·전북井州市蓮池洞350)가 쇠파이프로 점포를 부수고 들어가 전화기 전자계산기등 사무실집기를 마구 부쉈다.

金씨는 은행정문 유리창을 부술때 비상벨이 울려 달려온 경비원들에 의해 붙잡혔는데 경찰에서『5년전에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왜정때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평소 반일감정을 품고있었는데 최근 일본이역사교과서를 왜곡하자 분에못이겨 범행했다』고진술했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각종자개제품판매

한국에서 수입된 각종 자개제품 일부를 CNE에서 전시 판매 중이오니 관람 바랍니다. 교민들에게는 특별 할인 해 드리고 있읍니다.

본점 취급품목 :
각형 TABLE
병풍(4폭, 6폭)
화대, 각종 화병,
화장대, 문갑,
패물함 기타
장식품.

CNE 전시장 COLISEUM 내 EAST ANNEX BOOTH 56 (나무조각 전시장앞)
YONG'S LINEN & GIFTS CO., LTD.
Port of East & Kang's Crafts) MAPLE LEAF VILLAGE, NIAGARA FALLS, ONT.
☎ : 593-7882(CNE)
(1) 356-9155(NIAGARA FALLS)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옥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한국일보 (특집판)

診斷 가을맞는 캠퍼스의 이모저모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대학은 도서관 열람실이 만원을 이루고 단과대학별로 학회나 독서회등서클활동이 활발해지는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어느때보다 고조되고있다。

가을의 대학생활은 전공과목에 대한 정진은 물론 독서를 통해 지식의 폭을 넓이며 훌륭한 교수와의만남과 입생의 반려가될 知己와의 사귐을 통해 자기완성을해가는 노력으로 꾸며져야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일반적인 바람이다。

교수와 학부모가 바라는 이 가을의 대학생상과 상아탑 주위에 일고있는 자율의 바람속에서 학생스스로의 면학설계는 어떤것일까?

慶熙大정경대학장 權赫紹박사는 가을학기의 開講辭를통해『▲졸업후 뜻에맞는 직장을 갖기위해 전공분야의 공부를 열심히할것은물론、건전한 시민이 되고 진정한 自我를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

올들어 문교부의 대학생서클 권장에따라 크게 늘어난 서클활동도 가급적도시사회에 파고드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당부하고、실 다。

◀모든 대학인은 자기의 대학생활이나 인생설계를 자율적 적극적으로 세우고 스스로 시간을 아껴 면학하는 자주인、자율인이 돼야한다。

◀틈나는대로 전공외에 교양서적을 읽어라。독서량이 그 인간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각기업체의 신규인력 채용방침이 필기시험이 아닌 대학생활의 기록과인간됨이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있다。이것은 앞으로 대학생들은 주입식이나 암기식 공부를 탈피하고 건전한 분석력과 비판의 사유를 기르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한다는것을 암시한다。

◀몇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여 매사에 조급한 결론을 얻으려하지말라。

우주나 인생에는 이런의견 저런의견이 있음을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것이 萬卷의 이치를 깨닫는 가을에 걸맞는 마음가짐이다』고 뜻있는가울을 보내도록 당부했다。

대학생딸(韓順喜양·21 誠心여대 성악과 2년)을 둔 학부모 沈愚貞씨(57·여 서울銅雀區舍堂1洞)는 『스스로 너의 틀을 만들어 安住하려들지말고 무한한 이상을 펼쳐가라』고딸에게 들려준다。

沈씨는 자율의무드가 고조된 이가을엔 교수들이학생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가짐으로써 어린학생들의 이상주의가 현실감각과 조화를 이루고 무리없는 극복의 논리와 지혜를 얻게 해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高麗大 교육학과 3년 金瑞珠군(21)은 이번학기 첫시간에 방학중유럽을 다녀온 교수한분으로부터「외국문화의 장단점을 융합하여 지구동일문화권을 형성하는데 관심을갖자」는 말을듣고 공감을느꼈다』고 말했다。

金군은 방학전에 가입한 『교육화회』모임을 통해 외국 교육사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우리 민족교육의 脈을 짚어볼 계획이라며『학문의 순수성을 살려 공부해야겠다는것이 가을을맞는 자신과 동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金군은『학회의세미나나그룹토의에선「졸업정원제가 건전한 대학학풍 확립에 플러스가 될것인가」、「졸업후 취직에 교수의 의견이 참작된다는데…」、「교수능력평가에학생의견도 듣는다」는등 문교정책들에 대한 비판을하고있다』고 전하고『이러한 토의에 교수들을 모시지못하는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金군은 또『강의실에서 뵙는 교수의 얼굴과 연구실、가정、개인적인 대면에서 접하는 교수의 얼굴이 동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참 스승을 얻은 기쁨에 흠뻑 젖는다』며 교수들과 좀더 가까이 지낼수있는 가을이 되기를 바랐다。

동창회지의 원고정리로 용돈을 벌어쓴다는 金군은 과외단속이후 대학생 아르바이트기회가 크게줄어들었다고 지적、각종 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자료정리、원고정리등을 대학생들에게 할애해주기를 희망했다。

俗人은 봄을 좋아하고 哲人은 가을을 즐긴다고했다。

올가을 대학가의 젊음들이 자율화의분위기에서 새로운 대학상을 창조해가고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을하늘같이 높고맑은 理想을 구가하되「과학적정신의 에센스는 斷定하지않는것」이란 러셀의 경구를 음미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사회가 대학생에 거는기대다。

【申鉉鈺기자】

◇대학은 변천해가고있다。오늘의 캠퍼스 주인공들은 비록 캠퍼스 밖 사회와의 갈등을 부정하지않으나 대학의 변천을 긍정적으로 주도하고있다。대학의 면학풍토는 그들에의해 정착돼야한다。<高麗大 캠퍼스에서>

"몇권의 冊을 읽었다고 早急한 결론 얻지말라"

注入式공부보다 건전한 批判力을 이상주의와 現實감각조화 바람직

변모하는 大學 「浪漫」보다 「공부」

卒業定員制가 몰고온 勉學의 현장

대학이 변천해가고있다。그것이 자의였든 타의였든 오늘의대학은 학생이 공부하지않고는 못견디게 탈바꿈했다。어느사이엔가「어렵게 들어가서 쉽게 나오는 곳이대학」이란말이 옛말이됐다。종전까지 우리의 대학은 학문의연구보다「19세기적 낭만」이 강조되어온 면도 없지는 않았다。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학한 신입생은 학문적연구보다 대학의 기존 분위기에 젖어 쉽게「낭만」쪽에 접근해버렸다。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랑스럽게 가슴에 배지를 달고다니며、적당히 놀고、적당히 공부하고는 졸업장을 따냈다。취직에 필요한「대학졸업」이란 학력을 인정받는게 중요하다 할만했다。81년부터 실시된 졸업정원제는 그 부작용이야 어쨌든 대학을 공부하는곳으로 뒤바꿔게 하는 한 계기를 만들었다。입학을 했다해도 클라스메이트끼리의 실력경쟁에서 지면 졸업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졸업정원제의 낙오자는 숙명적으로 10명중 3명꼴이 되는 30%나 된다。4년내내 공부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된것이다。

◇대학의 도서관이 사시사철 만원이다。예년같으면 학기초라 빈의자가 많을때인데도 빈의자를 하나도 찾아볼수가 없다。학문적연구보다 낭만이 강조돼왔던 대학은 어느사이 공부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서울大 관악캠퍼스 도서관>

도서관마다 年中 成市

최근 일요일 서울의 도심근처에서 가장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은 예외없이 대학가이다。남들이 쉬는 날 도서관이나 빈강의실로 공부하러 나온 1~2년생들로 붐빈다。

종전같으면 대학도서관은 일년에 네번쯤 시험보기직전 반짝하고 문전성시를 이뤘다。도서관쪽 보다는 오히려 강의실을 뺀 캠퍼스 전체가 성황을 이뤘다。따따한 의자에 앉기보다는 부드러운 캠퍼스의잔디밭쪽이 당연히 대학인다운 자세쯤으로 여겨졌다。

요즈음의 대학 도서관은 사시사철 새벽과 한밤에도 불이 밝다。상당한 변천이다。

그러나 학생이 공부하는 도서관과 빈강의실의 불이 밝은것과 대조적으로 교수들의 연구실창문은 어둡다。그시간 학생과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할 교수가 없는 탓이다。

대학생의 학문연구를 리드해야할 교수들이 안일과 나태한 자세를 버리지못하고있다는 비판이 들린다。

지난20일 전국 총학장회의에서 행한 李奎浩문교부장관의 연설은 대학과 교수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는듯한 인상이 짙었다。李장관의 연설내용은 앞으로 대학의 면학풍토를 정착시키기위한 문교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있다。

『총·학장들은 학사일정을 엄수하고 결강이나 휴강이 없도록 다시 한번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중략>학생들의 수업방식도 개선해야 되겠으나 교수들의 강의의 평가방식도 개선해야되겠다…』

내용중 뒷부분은 대학교수들에게 큰 충격을 준것임에 틀림없다。구미에서 현재 제도화되어있는 이른바 학생들에의한 교수평가제이다。이는교수들사이에서 온당한 반발을 사고있다。

李장관은 그후『교수평가제는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갖는 관심의 표명이며 실시여부는 각대학의 자율에 따라 결정될문제』라고 부연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교수평가제는 이미대학교육협의회가 연구에 착수 실시에따른 득실을 따지고 있다。멀지않아 우리나라도 교수평가제가 실시될것이 거의 틀림없다。

學生들 熱意에 교수들 못따라 「評價制」도입엔 은근한 反撥도

우리의 일부 교수사회가 대학의 면학분위기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있음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잘 나타난다。

李奎浩문교부장관은 몇달전『우리나라 교수사회가 학문적 성취보다 권위주의의 아성에 빠져 부작용이 많다』고토로하고 한가지 토픽을 소개했다。

어느날 李장관은 외국에서 갖돌아온 한 젊고 유능한 교수를 만났더니 그교수가『더 이상 국내의 대학에 못붙어있겠다』며 울면서 하소연하더라는 것이다。그 젊은 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 스카웃되어 세칭 일류국립대학에서 강의를 맡게됐는데 기존 교수사회로부터 끊임없이 간접적인 배척을 받아왔다고한다。

그 교수의강의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자 다음학기부터 다른교수로 강의를 바꾸는가 하면、전공학문과는 다른 엉뚱한 강의를 책임지게 하고 점점 교수사회에서 소외시키더라는것。끝내 그 젊은 교수는 그 대학과 우리나라를 떠나버렸다고 李장관은 말했다。

교육법시행령 제62조는 대학의 법정수업일수를 2백10일로 규정하고있다。60년대와 70년대의 한때 혼란기엔 2백10일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정치적흥정으로 그럭저럭 넘어가기도 했으나 최근엔 형식적으로나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실제로 수업없는 수업일수가 상당수 있어온게사실이다。

축제등 학기중간에 갖는 행사도 수업일수로 치며、시험에 앞선 종강도 포함돼있는것이다。대학의 행사는 광의의 수업연장이라고 해석한다면 별문제는 없겠으나 시험에 앞선 종강은 완벽한 결강이나 다름없다。그일차적인 책임은 적당히 강의시간을 때우려는 교수들에 귀결된다。

문교부가 현재 구상중에 있는 두가지의 방안은 바로 이러한 교수들을 표적으로하고있다。하나는 필수및 전공과목을 현재보다 대폭 줄인다는 방안이다。필수나 전공과목이 많아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해도 졸업학점을 따기위해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한다。과목수를 줄일경우 학생들은 자연히 교수에대한 선택의폭이 넓어지게되는 것이다。또하나는 복수강의제 채택이다。똑같은 과목을 두사람이상의 교수로 분담시킬경우 학생들은 실력있는교수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나머지쪽은 자연스럽게 도태하게된다。

문교부는 한편 졸업정원제의 효율적인운용、측면학풍토조성을 위해 각대학에「대학학사개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이위원회는 특히 교수학습방법、교육과정 개발、학습평가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된다。

문교부는 가을의 대학캠퍼스가 공부에 전념하도록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있다。지금까지 터부시하던 권위주의에 충만한 교수사회까지 건드리고 있다。모처럼이루어진 면학풍토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희생도 치를 각오이다。

그러나 대학의 운영은 적절히 자율에의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면학풍토 정착은 좋으나 문교정책에서 획일적인 냄새를 옛보이게하는것이 흠이란 중론이다。그렇지만 우리의 대학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성장해간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다。【李鍾九기자】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2>

朴婉緒 作 金光培 畫

미리온 아이 ⑤

『가엾은것、왜 미리왔어? 굴속같은 집이 못난 애비에미가 뭐가 좋다고 미리왔어?』

오목이는 겨우 겨우 우는 아기를 토닥거리며 마치 자장가라도 부르듯이 이렇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 아이가 미리 온 아이라는걸 어떡하든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못박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녀에게 중요한 건 그녀가 그것을 믿는 것 보다는 남들이、남들중에서도 일환이가 그것을 믿어 주는 거였다。남들이 믿게하기 위해선 우선 자기가 먼저 믿지않으면 안될것 같았다。남을선동하려면 우선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안집여자가 홈웨어자락을 나풀대며 내려왔다。안집여자의 우아한 홈웨어자락은볼때마다 오목의 가슴을 편안치 못하게 했다。

『아들을 낳았다며?』

안집여자가 쟁반에 받쳐온 배추속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는게 아니라고 타이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산모를 들여다보러 내려온 그 여자는 아기와 산모를 외면하고 방안부터 둘러보았다。그 여자는 차갑고 고운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곰팡내와 피비린내때문에 코를 싸잡고싶은걸 참고 호흡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 방속의 방이 사람 못살데란 것을 벌써부터 알고있었다。그집을 신축할때만해도 세를 주기위해 설계한 방이었으나 셋방이 아무리 동이 나도 그 방을 돈 주고 세들겠다는 사람은 나서지않았다。결국 복덕방들조차 가망없는 구전을 바라고 다리품을 파는 헛수고는 안하게되어 저절로 폐방(廢房)이된 방이었다。

비록 거저이긴해도 그방에 살겠다는 사람이 나서자 사람이 살게되면 저절로 방꼴도 좀 되지않을까싶어 내주었건만 그여자는 지금 오목이네가 방을 그꼴로 버려놓은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집처럼 사람 꼴 따라 되는것도 없다니까。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 방을 내줬으니 방 꼴이 이 지경이될수밖에。

그 여자는「사람같지않은 것들」을「짐승만도 못한 것들」로 격하시킴으로써 자기의 아름다운문화주택속에 그런 어려운치부가있다는걸 통탄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들었다。

『아주머니 댁 신세를 어찌 다 갚으려는지요。그 할머니가 안계셨더라면 큰일날뻔 했어요。그이하고의논해서 사례하는것 잊지않을게。아주머니께서 말씀 잘 드려주세요』

오목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껏 비굴하게 굴었다。안집여자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긴 말을 해보는 것 같았다。

『네?그러시면…제가…』

『사례는 벌써 내가했어』

『김장때 품팔이 다니는 할머니야。애가 꾸역꾸역 나오는데 돈 구하러 나간 사람의 사례를 기다릴만큼 한가하지도、팔짜 좋지도 않은 노인이야』

『죄송합니다。꼭 갚아드리도록 하겠어요。면목없읍니다』

오목이는 일환이에 대한 들끓는 분노와 수치감으로 입술을 깨물면서 엎어 놓고 머리를 조아렸다。

『난 그래도 새댁은 유서방하곤 다르게 봤어。인물도 그렇고 교양도 아주 없어뵈지 않고。천눈에 잘못만난 내외간이다 싶더군』

여자가 차츰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광고문의 533·2361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주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주일학교 3:00 예배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6:00 (오전)토,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黃男淑·尹璟美 4強 올라

女복식 準準決 世界24위 日 와다-후꾸다에 逆轉勝

◇한국選手끼리 角逐 — 한국 선수끼리 맞선 여자복식 준준결승전。安海淑·梁英子 조가 金淑·李英美조를 맞아 분투하고 있다。安·梁조가 2-1로 승리。

한편 27일밤 벌어진 여자단체전 준준결승전에서는 安海淑·梁英子의 한국A팀이 프랑스를 3-0으로 완파했으며 李美雨·金淑姬·朴末粉으로 구성된 한국여자C팀은 日本에 3-0으로 패했다。스웨덴은 캐나다를 3-1로, 핀란드는 西獨을 3-0으로 물리쳐 4강의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단체전에서 초반에 탈락、실망을 안겨주었던 黃男淑은 이날 尹璟美와함께 여자개인복식 준준결승전에서 세계24위의 강호 와다와 신예 후꾸다조에 2-1로 역전승、단체전서의 패배를 만회했다。

黃·尹조는 첫세트에서 와다의 맹렬한 공격과 후꾸다의 착실한 수비에 압도당해 9-21로 리드당했으나 제2세트부터 맹반격을펴 21-14 21-17로 연달아 세트를빼앗아 승리를 거두었다。

安海淑·梁英子조는 金淑·李英美조에 17-21·21-7·21-14로 역전승 했다。

한국의 李美雨·金淑姬조도 한국의 鄭庚子·韓美玉조와대결、첫세트를 17-21로 빼앗겼으나 제2세트의 듀스를 이루는 고비에서 23-21로 역전리드하기 시작、마지막제3세트를 21-13으로 빼앗아 2-1로 역전승했다。

한편 이날 여자 개인단식 1회전에서 1번시드의 챔피언 黃男淑은 美國대표로 출전한 羅珍을 21-13·21-12 스트레이트로 제치고 2회전에 진출、스웨덴의 엘리아손과 대결케 되었다。

金明姬는 이번대회 여자단식 4번 시드를받은 강적 스웨덴의 린드블라트와 첫전끝에 21-15、15-21、21-15、21-7로 승리、파란을 일으켰다。

단체전에서 한국의 梁英子와선전、주목을 끌었던 프랑스의 따리에는 이날 1회전에서 日本의 신예 후꾸다(19)와 혈전끝에 3-2의 역전승을 거두었다。처음 두세트를 잃어 핀치에 몰렸던 따리에는 점차 체력이 떨어지는 후꾸다를 놀라운 파워로 밀어붙여 3-2로 전세를 뒤엎었다。

스웨덴·핀란드 準決에 각각 캐나다·西獨눌러

黃男淑、美대표 羅珍 제쳐 女개인 단식

서울国際탁구 (제4일)

제2회 서울국제 오픈탁구선수권대회 여자개인복식 준준결승전에서 한국의 黃男淑·尹璟美조、安海淑·梁英子조、李美雨·金淑姬조와 오스트리아의 페터·빌체조가 각각 승리、4강 전에서 겨루게 되었다。한국의 尹璟美·黃男淑조는 28일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속행된 대회 4일째 여자복식 준준결승전에서 강적 日本의 후꾸다·와다조와 격전끝에 2-1로 역전승、갈채를 받았다。29일 준결승전에서 黃男淑·尹璟美조는 오스트리아의 페터·빌체조와 대결하며 安海淑·梁英子조는 같은 한국팀 李美雨·金淑姬조와 결승진출권을 겨루게 된다。

女단체

◇제4일전적

▲여자복식준준결승

李美雨·金淑姬	2	21-13 23-21 17-21	1 鄭庚子·韓美玉
尹璟美·黃男淑	2	21-17 21-14 9-21	1 후꾸다·와다
安海淑·梁英子	2	21-14 21-7 17-21	1 金淑·李英美
페터·빌체	2	21-15 20-22 21-17	1 그룬디·위트

▲남자복식2회전

마에하라·사이또	2	21-15 21-19 19-21	1 李昌薰·朴知賢
렌트·린드손	2	21-19 21-16	0 金容鉉·池龍玉
이노우에·모리배	2	21-15 14-21 21-12	1 趙東元·申東炫

◇제3일전적

▲여자단체준준결승

한국A	3-0		프랑스
安海淑	2	21-4 21-7	0 누리엘
梁英子	2	21-14 21-15 18-21	1 티리에
安海淑·梁英子	2	21-11 21-13	0 누리엘·티리에
일본	3-0		한국
와다	2	21-12 21-19	0 朴末粉
후꾸다	2	21-18 16-21 21-15	1 李美雨
후꾸다·와다	2	21-14 21-12	0 李美雨·金淑姬
스웨덴	3-1		잉글랜드
핀란드	3-0		서독

한국, 日야구自慢心 꺾었다

韓·日高校경기 2차戰선 痛快한 역전勝

趙啓顯 투타猛威… 2타점3루타 기염

【大阪支社】 한국고교야구선발팀은 28일 오오사까(大阪) 구장에서 벌어진 韓日고교야구대회 2차전에서 통쾌한역전승、日本보다 한수위임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이날 내야수비가흔들리고 공격이 잘안풀려 7회까지 3-1로 리드당하며 고전했으나 8회말 9번趙啓顯의 2타점 3루타등 집중 4안타로 5점을뽑아 6-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한국은 29일하오 日本과 최종3차전을 벌인다。

한국은 패기에서 日本을앞섰고 안타수도 12-9로 우세했다。릴리프로 등판한 趙啓顯은 전날의 피로때문인지 5안타를 맞았지만 8회말공격에서 日本추격에 쐐기를박는 2타점 3루타를 터뜨려 수훈을 세웠다。

한국은 安珖洙、趙啓顯、金宗奭을 계투시켰다。8회말、잇단 찬스를 후속타 불발과 병살타로 놓쳐 역전의 실마리를 풀지못하던 한국은 타자를 일순하는 맹타로 단숨에 5점을 거둬들여 日本 수비진의 얼을 빼놓았다。

한국의 具守甲감독은 8회말을 마지막 추격기회로 삼고 선두타자 李政勳에게 어떻게든 살아나가라고 지시했다。

전날경기서 5타석 無안타에 그쳤던 李는 행운의 중전안타로 대역전극의 첫포문을 열었다。

이어 3번姜起雄이 우익수앞에 안타를치고 4번柳仲逸의 희생번트를놓고 日本수비진이 어물어물하는사이에 주자는 모두 세이프、일순간에 만루가 됐다。

1안타면 동점이 될수있는 상황이었다。긴장한 日本의 아라끼는 초구를 金宗奭의오른발에맞혀 데드볼을 허용、한국은 행운의 1점을얻었고 6번 黃允泰가 왼쪽펜스가까이 떨어지는 깊은희생플라이로 3루주자 姜起雄을 홈에불러들여 동점을 만들었다。1死에계속 이어진 2、3루의 찬스서 日本구원투수신타니가 7번 李貞珉에 포볼을줘 만루를 만들고 8번 張虎翼과의 대결을 시도했으나 張은 수비진의 허를 찌르는 절묘한 스퀴즈 번트를 성공、역전주자 柳仲逸을 홈인시켰다。

다음 타석의 趙啓顯은 이날 피칭의 부진을 만회하려는듯 2死 볼카운트2-3에서 우익수옆을 뚫는 통렬한 3루타로 2점을 추가、승리의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27일 벌어진 1차전서 한국은 릴리프 趙啓顯의 위력적인 피칭에 힘입어 日本을 4-2로 물리쳤다。趙啓顯은 이날 2회초 2死후 릴리프로 등판、26타자를 4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

◇제2차전

일본선발	100	100	100	3
한국선발	100	000	05×	6

▲한국투수=安珖洙、趙啓顯(4회)、金宗奭(8회) ▲日本투수=아라끼、신따니(8회)

◇제1차전(27일)

한국선발	010	300	000	4
일본선발	010	000	001	2

峨山旗수영… 女高혼영서

李始恩(祥明여고) 한국新

자기기록 3초68 단축

28일 잠실 수영장에서속행된 제2회 峨山旗쟁탈 전국수영대회 2일째 여고개인혼영 4백m서 李始恩(상명여고)은 5분12초50으로 자신의 종전기록을 3초68단축、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권투심판 資格정지 韓哲熙·李光雨씨

한국권투위원회(KBC)는 지난14일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金東榮-아르넬·아로살(필리핀) 대전의 경기주심 韓哲熙씨와 부심 李光雨씨에게 각각6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를내렸다。

KBC는 이들두심판이 객관적인 공정성을 상실、열세가 확실한 金선수를 승자로 채점、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第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1局 第2譜 1~10 (각4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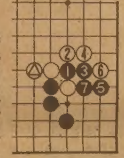
白(7段) 盧永夏
黑(6段) 洪鍾賢

제14기 名人戰예선(토너먼트)은 名人 曺薰鉉9단과 시드組인 徐奉洙、河燦錫 7단 張秀英 6단 姜勳4단등을 제한 나머지 전기사가 참가하여 8월9일부터 한국기원에서 벌어졌다。

우선 3단까지의 1차 예선에서 5명을 선발、4、5단진인 제2차예선에 합류시켜 다시 5명을 선발하고 마지막으로 6단이상의 제3차 예선에 합류、여기서 3명을 선발하여 본선리그組에 가입시키게 된다。

盧7단과 洪6은 당연히 제3차 예선부터 참가하여 이제 본선진출권을 겨루게 되었거니와 이들이 모두 과거에 名人戰 본선식구로 활약한바있어、과연누가 복귀하느냐가 이 바둑의 흥미거리。

黑취향의 勢作戰



黑5、白6으로 피차 귀걸침한데까지 흔히보는 유행포석인데 여기서 대뜸 黑7쪽을 붙여서 변화를 피한다。

黑5에 20분을 소비한것은 白6을 예상하고 하변일대에 큰세력을 펼생각이었다。

평범하게 두자면 7은「가」에 붙이거나「나」에 협공할 곳이다。

盧7단은 얌전하게 白10으로 지켜두었다。당연한수다。이수로 黑세를 삭감하려고「다」에뻗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참고도와같이 黑1이하7까지 黑의 실리가커서 이정석은 요즘 좀체 쓰지않게 되었다。다음黑의 수는 뻔한데도 洪6단은 신중히 생각한다。【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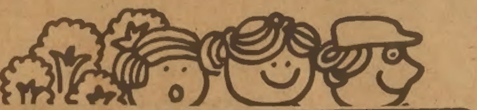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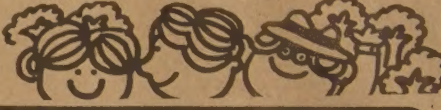
趙五連、도버渡泳 어제새벽에 出發

趙五連(30)이 28일새벽4시(한국시간) 도버해협 왕복도영을 시작했다。

지난7월 英國에건너가 현지적응훈련을 가진 趙五連은 당초 지난14일 도영예정이었으나 현지일기불순으로 연기 이날 도영에 들어갔다。

80년8월11일 사상최초로 大韓해협(51km)을 13시간만에 도영했던 趙선수는 이번에 英國도버항을떠나 프랑스 칼레에 이르는 33km를 왕복케되는데 종전기록 19시간10분을경신할목표로하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 · 냉면
짜장면 · 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a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Part Time Helper 구함.
(서부지역) 전화 : 769-5956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가정에서 봉제품을 완전히 만드실분 구함.
전화 : 530-1046 (Mrs.한)

가게 Part Time 남자 Helper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7-0847

지렁이를 계속 잡으실분 원함.
전화 : 922-3061

씨알학교 운전수 구함.
동쪽 버스 운전하실분 구함.
전화 : 960-0074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점심시간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오전11시30-~오후2시30분 (3시간)
전화 : 757-6334

Shoe Maker(Finch & MacCowan Mall)
Helper 구함. (Full Time)
전화 : 291-8367(B)

도나스숍에서 밤에만 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지역) 밤11시-아침7시
풀타임 또는 파타임. 398 Church St.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2-2727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두 아기와 가사돌볼분 구함.
위치 : 나이아가라에서 20분거리 미국 버팔로 뉴욕.
전화 : 1-716-634-5839 (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아기보아 주시고 살림 약간 도와주실분 구함.
(일요일은 쉼) (Bloor & Jane)
전화 : (B)535-1210 (R)762-2562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매매

Private Sale(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Double Garage)
Asking : $110,000
(Morning side & Lawrence 지역)
전화 : 281-0963 (5:00 p.m 연락바람)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 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카드(Card) 렉 (4 ft.) 팝니다.
전화 : 769-5956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좋은 가격으로 바쁜거리에 위치한 Variety Store. 주인 은퇴로 급히 팝니다. Call Mr. Messina
Cabot York Realty Inc. 781-6151, 677-0616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나이아가라 지역 - 위치와 조건좋은 그로서리 스토아 주인 건강관계로 급매. 주매상 : 4,600-5,000불 보장
리스 : 5년+3년 2층 살림집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 요망.
전화 : 1-892-5251

VARIETY STORE 매매. (NO GROCERY)
3447 St.Clair E. at Birchmonut Rd.
전화 : 265-9000

TUCK SHOP
주매상 : $4,500. 리스 : 84년 11월까지+5년
전 화 : 272-4568 (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9월은 토요일만 오픈. 시간 12~6:00시
◉판매방법: 칼과 Box 준비. 직접 뽑아 가심.
◉채소종류: 배추, 여러가지 무 있음.
(열무김치·풋배추·국거리·저장류)
◉장 소: Eglington과 HWY10 교차에서 서쪽으로 1마일 가면 Second Line있음. 북쪽으로 500m.
◉연락처: 622-5509

(1)Variety Store $109,000(스카브로)
(2)Variety Store $28,000(Finch & Islington)
(3)Coin Laundry & 건물 $159,000(Bloor)
(4)건물 : Bloor & Christie. $154,000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집렌트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4시이후 연락바람)

셋방 있음(1 Bed Rm+Kitchen) $200/M.
9월1일 입주가능. 하이드로 포함.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1:00p.m.-10:00p.m.) Mr. Kim

4 Bed Room 집전체를 싸게 세놉니다.
Branpton 전화 : 1-632-9313

Town House 방세 놓음.(Don Mills 지역)
직장여성이나 혼자 사시는 여자분 환영($170/M)
Hwy 401 & D.V.P.에 가까움. 전화: 449-1913 (오후8시까지)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아파트렌트

"Sublet"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9월15일 입주가능함.9개월 남았음.한달 $378(유지비 포함)
3400 Weston Rd & Finch 전화 : 222-3877 (Miss 김)

☎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레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illegible] 방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12-0737(R)

방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서×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일정한 회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